



**한 갑 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 번영과 풍요를 위한 21세기 신에너지 정책의 방향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앞날을 가늠해 보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분야도 이러한 노력이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에너지 안정공급이 지속적 경제성장 과 생활의 풍요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존 에너지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지원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왔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전력난에 허덕이던 시대가 있었다. 매년 겨울철마다 가정에서 연탄을 장만 하던 것이 일상이 되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전력생산과 석유정제능력 등은 세계 수준으로 부상하였으며, 가정의 취사, 난방은 전국 주요 도시가구의 약 절반이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생활의 윤택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 만족하

고 안주할 수는 없다. 국제 경제환경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게을리 될 경우, 지금의 풍요와 번영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방향을 예견하는 지혜는 우리 모두가 모아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계가 대비해야 할 과제는 다음 세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로 동아시아 에너지 수급밸런스에 예민해져야 한다는 점을 제일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망에 따르면 2005년 전후로 중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 가스 자원의 확보를 위해 일본, 중국 등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극동러시아, 일본과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

**풍요와 번영은  
시대적 사명으로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갈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로 이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환경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억제 정책은 환경문제를 국제 경제질서의 기본을 규제하는 수준으로 확대시켜 왔다. 지구환경 보호규정이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에 국제적 표준규약으로 자리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과거 에너지자원 고갈이 성장의 한계로 인

**에너지산업계는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후변화협약 관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체자원 개발을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식된 적이 있다. 그후 자원개발기술의 발전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으로 당시의 우려가 반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유, 가스는 언젠가 고갈될 지하자원이다.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대체자원 개발을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있었다. 풍요와 번영은 시대적 사명으로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갈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새세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안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